

# 난중일기에 기록된 안편도로 추정되는 섬에 대한 연구

고광섭\* · 김득봉\*\*

\*, \*\* 목포해양대학교

**요 약 :** 본 연구는 난중일기의 기록 중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을 항해하면서 조선수군의 새로운 본영을 물색하고, 명량해전 이후의 조선수군의 전략을 구상하던 장소로서 전시 임시 전략지휘소로서 의미가 큰 안편도(발음도)의 현재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섬들 중 팔금도를 대상으로 항해 과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이순신 장군과 그의 참모들이 올라가 주변을 조망한 위치로 추정되는 섬 중의 하나인 팔금도의 채일봉과 금당산에서 관측한 방향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난중일기, 안편도, 팔금도, 금당산, 채일봉, 이순신

##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난중일기의 기록 중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을 항해하면서 조선수군의 새로운 본영을 물색하고, 명량해전 이후의 조선수군의 전략을 구상하던 장소로서 전시 임시 전략지휘소로서 의미가 큰 안편도(발음도)의 현재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섬들 중 팔금도를 대상으로 항해 과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2. 안편도 산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 모습

이순신의 일기 원문에 1597년(정유년) 10월 11일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일) 정오에 안편도에 도착했다. 바람이 자고 날씨가 온화하다. 배에서 내려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전선(戰船)을 숨겨둘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동쪽으로는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었고, 북쪽으로는 나주와 영암의 월출산이 트이고, 서쪽으로는 비금도로 통한다. ”이윽고 중군장과 우치적이 올라오고 조효남, 안위 우수가 잇달아 올라와 왔고, 날이 저물어 산에서 내려왔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영에서 안편도에 상륙하여 이순신이 산 위로 올라가 주변을 조망한 목적은 전선을 숨겨둘만한 정박지를 찾는 일이었다. 날이 저물어야 산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순신은 그의 참모들과 함께 정박지를 찾는 일은 물론 향후 조선수군의 관리와 전략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3. 안편도로 추정되는 섬(팔금도)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팔금도 채일봉과 금당산의 산 정상위치에서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현장답사를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채일봉에서 현장답사 결과

방향	난중일기 기록	일치 여부
동쪽	섬에 가려져 있음	불일치
북쪽	나주, 월출산이 보임	나주:일치 월출산:불일치
서쪽	비금도가 훤히 보임	일치

<표 2> 금당산에서 현장답사 결과

방향	난중일기 기록	일치 여부
동쪽	섬에 가려져 있음	불일치
북쪽	나주, 월출산이 보임	나주:일치 월출산:불일치
서쪽	비금도가 훤히 보임	일치

팔금도 두 개의 산에서 볼 때 동쪽에 앞을 막는 섬이 존재하지 않고, 월출산은 거의 정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금도는 서쪽에 위치한다. 방향 판단에 오류가 있어 월출산을 북쪽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하면 비금도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 4. 결론 및 토의

연구 결과, 팔금도의 채일봉과 금당산에서 관측한 방향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안편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